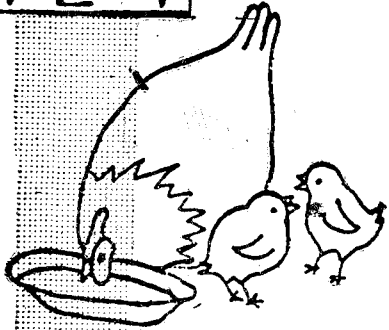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10월로 접어들게 되면 주야간의 온도차가 격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의 발생이 빈발하며 일조 시간감소에 의한 환우계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야간 온도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조명시간을 조절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 기생충과 무더운 더위로 피로해진 닭이 가을철에 접어들게 되면 케이지 피로증 또는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유발시키게 되므로 금월의 사양관리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환우계에 대한 대책과 9, 10월에 발생하기 쉬운 계두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술코자 한다.

1. 환우

1) 원인

일반적으로 조류는 생리적으로 1년에 한번씩 환우를 하게 되는데 환우 원인은 난소기능의 감소와 우모의 노화에 기인된다. 우모의 노화란 신생우모가 형성된 후 80일이 경과되면 우모근부에 경계가 생겨 혈액이 통하지 않는 조적이 된다. 따라서 신생우모의 성장정지후 6개월이내로 휴산을 해도 환우를 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시일이 경과되면 우모의 유지조

적이 노화하여 환우를 일으키게 된다. 난소기능의 감퇴에 의한 것은 닭의 체력이 저하하고 난소자체의 약화에도 기인하지만 난포자극 호르몬인 에스트로신의 분비가 감소되어 환우를 일으키게 된다.

2) 대책

9월 초순부터는 주야간의 온도차가 격심하게 나타나므로 야간온도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짧아지는 일조시간에 대응하여 점등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점등의 원리가 점등빛이 닭의 시각총추를 자극하여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점등개시후 1~2주 후 부터는 점등효과가 나타나 산란상승은 물론 식욕도 증진하게 되어 환우개시가 늦어지고 환우를 하더라도 가볍게 끝낼 수 있다. 점등방법은 대체로 신계(新鷄)에 대해서는 가벼운 점등을 실시하고 2년제 이상의 노계에는 강한 점등을 실시하며 도배적전인 닭에 있어서는 중야점등을 실시한다. 조명방법도 평사에 있어서는 1.8m 높이에 평당 8~10와트를 기준하여 설치하는데 100와트 전구 1개를 10명에 켜는 것보다 20와트 전구 5개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급사기와 급수기를 끌고루 비취 계사내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함이 좋다. 케이지 계사에서는 상단과 하단의 조명이 균일하게 되도록 전구의 수를 조절하고 전구의 높이에도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

10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제 1 농장장〉

2. 계두

계두에 있어 일반 양계가의 인식은 모기가 가장 많이 번식하는 여름철에 한해서만 발병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가을철 계두 예방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9월초부터 기온급강화와 동시에 발병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계두백신을 접종한 닭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세밀히 닭을 관찰하여 사전에 계두를 예방함이 중요하다. 또한 가을에 계두가 발병하게 되면 기온의 변화가 심하여 타 호흡기 질환이나 포도상구균증(바터리병)의 합병 감염이 우려되므로 여름철에 발병하는 계두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

1) 발생경위

계두는 년중 어느때고 발생되지만 피부형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나타나고 점막형은 겨울에 다발하는 경향이 있다. 계두 바이러스는 모기나 하루살이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여름에 유행하는 계두는 이들 흡혈곤충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온이 더운 지방에는 기온이 낮은 지방에 비해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가을 늦게까지 서식하기 때문에 계두 발병 위험 시기가 길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넓은 지역에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가 대단히 크다.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계두 발생이 많은 것은 여름동안 침입된 바이러스가 닭에 계대(繼代)되는 사이 독력이 증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계두는 모기에 의한 전파 이외에도 피부나 점막에 상처가 생겨 상처부위에 바이러스가 부착하게 되면 언제든지 감염하게 되므로 서로 쪼아 상처를 내는 경우, 철망이나 케이지에 의해 상처가 날 경우, 또는 타 질병에 의해 점막이 상처입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 비교적 겨울에 발병율이 많은 점막형 계두는 여름동안 증식한 바이러스가 먼지나 계분속에서 계사내에 상존하여 모기로 부터 받은 이행항체가 소멸되는 1~3개월령의 어린 병아리에 감염하는 경향이 허다하다. 그러나 겨울동안의 계두는 상처부위에 침입하기 때문에 만연범위가 대체로 제한되어 있다.

2) 증상

잠복기는 4~6일, 긴 것은 감염후 2주간 후에 발두한다. 병의 경과는 통상 3~4주간으로서 회복하지만 혼합감염인 경우는 회복시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피부형은 점막형에 비해 그 회복이 양호하다. 발두현상은 감염후 5~6일경에 적은 회백색의 구진이 보이고 구진이 나타난 후 3~5일경에 최고도에 달한다. 출혈성의 병변은 발두의 중심으로 부터 시작하여 전체가 암적색으로 나타나고 수일 후 부터는 건조한 초코렛색의 가피를 형성한 후 가피가 떨어져면서 서서히 회복한다. 일반증상은 피부형의 경우 육관이나 육수, 다리등에 소수의 발두현상을 보이고 식

육이 약간 떨어지고 산란율이 3~7%떨어지는 것으로 그치고 빨리 회복하지만 전신에 번지는 악성계두 일때는 빈혈이나 영양장애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눈부위에 발두했을 경우는 실명하는 예도 있으며 비강에 침입했을 때에는 비즙이 나오고 입안에 발두하면 체식이나 음수에 끈란을 가져오며 후두나 기관에 발두하면 골골하는 소리는 내지않으나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하게 된다.

3) 예방 치료

계두바이러스는 건조한 장소나 저온에도 대단히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오염되고 일반적인 소독약으로 비교적 쉽게 불활화(不活化)시킬 수 있지만 석탄산에는 꽤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독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발생하는 계두는 모기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기나 하루살이 등의 흡혈곤충구제도 철저히 해야한다. 겨울에 나타나는 점막형 계두는 상처부위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닭이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바이러스가 침입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계두예방접종은 초생추때 1회 접종으로 일생면역이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되어 1회 접종후 차기에는 접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1회 예방접종만으로는 계두발생이 허다하므로 부화시기에 따라서 2회이상 접종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